교회에 가지 말고 대신에 교회를 살자

(딤전3:1~16)

14.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 가지 말고 대신에 교회를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교회를 가지 말고 대신에 교회를 살자'
오늘 3장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위하여, 장로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투표하고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설교해 주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경우가 될까요?
디모데가 목사님이라 그러면, 감독은 교인을 가르치고 돌보고 지도하는 그런 장로님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집사님을 뽑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감독님을 도와서 교회를 돕고, 교회 일을 위해 헌신할 집사님들을 뽑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14절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이 언급 속에서 나오는 교회가 무엇이냐를 앎으로써, 직분으로서의 감독 직분으로서의 집사님이 어떤 분이 되는 게 좋고, 또 감독과 집사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요?
그걸 직접 감독이 갖추어야 될 15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하는 거보다는, 또 집사님이 갖추어야 될 6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보다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이해면서,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앎을 통해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람직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부분을 통해서, 감독직과 집사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해를 하고, 동시에 그것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라는 것도 이해를 해서 교회를 가지 말고 교회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구약성경에서는 성전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동시에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곧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라는 게 없으면 이 세상의 진리가 터를 잡고 기둥이 세워지듯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교회가 있음으로써 진리가 이 세상 안에서 터가 생기고, 터 위에 기둥이 세워지듯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서부터 중요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당시에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요즘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와 아이에게 '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를 간다는 게 차를 타고 예배당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간다고 하는 이 말과 이 생각이,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적 오리엔테이션 위에서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는 거라 이거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쓰고 있고, 에베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사도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 생각처럼 예배당이 있는 건물에 가는 것을 교회를 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염두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라는 게 그때 없었으니까.
그냥 가정 가정이 몇몇 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몇몇 집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몇 개가 모여서 에베소시의 교회가 되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던 거예요.
한꺼번에 모이는 예배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그리 다른 이해를 가져다주는 사실이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뭐가 도대체 큰 차이가 나냐?
가정교회 식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맨날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를 간다고 그래 버리면, 예배당 건물에 모여 있는 시간 이외의 예배당 밖에 모든 세상은 교회 밖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모여 있을 때 교회에 간 것이 되고,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은 다 교회 밖이 되어 버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바울 마음속에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교회가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가정에서 있는데, 가정에서 있는 중에 교회에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중에 가정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이라는 게 가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는, 가정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활을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진리가 터를 발견하고 굳건한 기둥이 세워지듯이, 가정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있는 중에 교회를 살고 있는 거니까, 교회를 살고 있는 중에 직장에 있는 거니까, 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직장 안에서 내가 신앙고백하고 받아들인, 그 진리의 터가 그 사람 때문에 마련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진리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았던 거지, 교회를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독일에 괴팅겐은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이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건물 생기고, 또 한 건물 생기고…
그렇게 대학 건물이 여기저기 생기는 가운데 도시가 형성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괴팅겐대학이라는 건, 괴팅겐 도시 안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괴팅겐대학 안에 도시가 만들어진 샘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즘처럼, 콤플렉스 형태로 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담 싸놓고 그 안에 모든 과의 건물들이 다 들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팅겐도시에 이곳저곳에 대학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학과 도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도시라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대학도시라는 게 없잖아요.
이건 대학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는 삶과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건물을 지어 놓고는, 거기를 향해서 갈 때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예배당 바깥에 시간은 다 교회 밖이 돼버리면서, 현실적으로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진리가 터를 발견하고 기둥처럼 세워지지를 못하는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지요.
직장에 나가 있으면서 교회를 살고,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모임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모이기에 힘쓰는 거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모였어도 가정에서 모였지요, 계속해서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예배당 건물 없이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이, 이런 그 당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는 감탄사를 말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 경건이란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잘 안하니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죠?
도대체 경건의 비밀이 뭐냐.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은, '크도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누가 이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겠느냐?' 라는 감탄사, 이 감탄사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들였으니, 사도바울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경건의 비밀이라는 그 말이 가리키는 건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감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감탄이.
진짜 문자적인 경건의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비밀 때문에 감탄하는 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탄할 게 있을까? 뭐가 그렇게 감탄할 게 있을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지금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데 나의 이 감탄이 틀렸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는 것을 반박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이 경건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보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위대함을.
하루 온종일 주일날 여전도회 일 때문에 바빠서 녹초가 돼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라면하나 끓여줘 하니까, 소리를 빽~ 지릅니다, 네가 끓여 먹어 이 자식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고등학생이나 돼 가지고 중학생이 돼 가지고, 라면도 하나 네 손으로 못 끓여 먹어? 성질을 팍 냅니다.
여전도회 회장으로 일할 때는 천사였어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영적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집에 돌아가면 교회 밖이 돼 버리니까, 진리와 진리의 터가 없어지고 진리가 세워질 기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기둥처럼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직장이 곧 교회이고, 그곳이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 현장이라서, 직장에 안수집사님인 김 부장님이 가시면, 김 부장님이 진리가 세워지는 터가 되고, 김 부장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진리가 기둥처럼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김 부장님인 안수집사님이 그만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주차봉사부터 하고 뭐 이거하고 저거 하느라고 힘이 다 빠져 가지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오면 그냥 회사의 논리를 따라 가고, 경제논리를 따라 살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경건의 비밀이 삶속에서 열매를 맺는 걸 못 보니까, 감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감탄의 내용이 뭡니까?
감독과 집사입니다.
자! 보세요.
감독에게 대해서 15가지의 덕목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6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교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이 군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인이에요.
근데 공자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나는 성인은 만나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군자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군자라도 한 번 만나 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군자가 누구입니까? 학식과 덕을 겸비한 자에요.
학식이라는 것도 덕과 관계되는 겁니다.
옛날에 학식이라는 거는 요즘처럼 테크놀로지 그런 학식이 아니고, 나를 닦는데 이바지되는 그런 학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덕이 풍부한 사람이 군자인데,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감독도 집사도 그 말대로라면 군자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말해 놓고 나니까 이런 심정이 드는 겁니다.
깔깔깔 웃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내가 디모데 너에게 지금 말을 하고는 있지만, 감독의 15가지 덕 집사의 6가지 덕을 다 갖춘 사람을 이 세상천지 다 돌아다녀 봤지만, 어디서 내가 만나겠냐?
근데 놀랍고 감탄할 일은 노예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경건의 비밀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온~ 천지사방을 다 돌아다녀 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
감독이 될 만한 사람,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군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죄악 속에서 허덕이던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누구보다 더 앞장선 죄인들이었는데, 십자가 복음에 붙들고 있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경건의 비밀 아닙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15가지 덕목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통찰이 아주 깊은 지혜자이면 지혜자일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와 함께 성선설의 입장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돌아다니고 가르치는데 군자를 못 만난 거예요, 군자를.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전도한다고 로마제국의 천하를 돌아다녀 볼 때, 어디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그렇게 죄에 허덕이고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뼈까지 죄로 물든 인간들이 이상하게 십자가 복음 하나 마음에 붙잡고 사는데, 15가지의 덕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 값에,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외인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터가 돼가지고, 그 위에 진리를 기둥처럼 세워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직장에서 교회를 살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교회를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 앞에서도 그냥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감독의 덕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다윗이 성군이라 그러지만, 아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도 없이 많은데, 밧세바를 또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주었는데도 부족하냐? 네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 난리를 칩니다.
성군도 그런데 하물며 능력만 있다면 보통사람들이야 왜 그런 짓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붙잡고 가는데, 이상하게 아내 하나면 감지덕지 하는 그런 마음상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인데.
에베소교회에 감독할만한 사람이 분명이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는가?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깁니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던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육신이 되고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죄인 된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셨지만, 그 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살지만,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 사이에는 간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의 삶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삶의 현장은, 그 위로 하늘과 막힘이 없이 하늘과 터져 가지고 하늘과의 왕래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근데 만국에 전파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국에 전파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이, 만약에 인도라 그러면 인도에 주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 그 주님의 이름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한국에 전파되면, 한국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 위에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부산과 서울이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직통도로가 되는 것처럼 하늘과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파되는 곳마다, 그 곳에서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바 되시고’라는 건, 우리가 믿는다는 것,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보세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육체로만 사신 게 아니에요.
그 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그냥 직통으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드려버립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주님이 마치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보니까,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는 누구냐?
이 선한싸움, 끊임없이 주님에게 마음을 드림으로써,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주님과 아버지가 관계하고 계시는 그 자리, 주님의 자리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의 빛을 마음속에 쏴 주시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그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감독과 집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기능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초적인 이유가.
그렇게 기능을 하겠지마는, 더 원초적인 이유는 '감독과 집사를 봐라'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너희도 십자가를 붙잡고 선한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날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가는 일에 힘쓰다 보면, 너희가 눈에 보고 있는 감독과 집사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예증으로서 감독과 집사를 뽑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그냥 육체가 다 정말 뻗어질 정도로 지치도록 일을 하라고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옛날 교회의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게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나자빠질 정도로 일을

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왔던 것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 몰아내고, 십자가를 안겨주고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돌려보내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자식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간격 없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직장에서, 그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지 않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느냐, 이게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 하느라고 힘을 다 빼놓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살아 있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다 죽은 물고기라, 진리가 죽어버린 물고기가 돼 가지고,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가지 마세요, 교회를 사세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너와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서로 몰아내고, 목사님 말씀이 몰아내고, 다시금 십자가를 마음속에 굳건히 받아들여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예배로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드린 번제를, 나가서 생활화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번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건한 삶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바로 이 세상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진리가 터를 발견하고 나로 인해서 터를 발견하고, 기둥처럼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사도바울이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감탄해요.
나같이 악한 자가, 나같이 죄 속에 완전히 장아찌처럼 정말 박혀 있던 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가짐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누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건의 비밀의 이 능력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감탄이, 저의 감탄이 되고 여러분의 감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를 사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나 스스로가 교회의 일부로서 진리의 터가 되고 내 행동이 진리의 기둥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